

지역 학교폭력 피해 코로나19 이후 증가세

광주·전남 2021년 1천148명·1천866명→작년 2천4명·2천303명 대면수업 영향 언어·신체·따돌림 순...교육청 "선도·보호 넓혀"

광주·전남지역 학교폭력이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관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2021년 1천148명 ▲2022년 1천703명 ▲2023년 2천4명이다. 전남도교육청의 조사에선 ▲2021년 1천866명 ▲2022년 2천370명 ▲2023년 2천

303명으로 파악됐다. 앞서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2022년 수업 방식을 정부 방침에 따라 대면·비대면 등 유기적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학기부터 정상 등교 및 대면 수업이 재개됐다. 전남은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학생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광주는

17.67% 정도 증가했다. 광주·전남 학교폭력 피해를 유형(중복 집계)별로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1천367명·1천5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 671명·734명 ▲집단 따돌림 588명·669명 ▲강요 283명·379명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의 중복 집계는 언어폭력에서 시작해 신체폭력으로 번지는 등 학교폭력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확산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같은 학교 및 동급생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선·후배 사이 등 다양한 관계 및 공간에서 발생

한 것으로 확인돼 단순 교내 지도만으로는 예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이달 1일 광주 북부경찰은 폭행 혐의로 A양 등 여고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들은 지난 2월27일 오후 9시께 북구 신용동 한 공원에서 중학교 동창 B양을 때리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양 등은 B양이 자신들에 대한 협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0일 영광경찰서에는 영광군 한 주택가 골목에서 여중생 2명을 서로

때리도록 강요한 중·고등학생 5명이 입건됐는데, 이들은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은 대면 수업 재개 등의 영향이 있는 만큼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는 "학교폭력은 학교 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학생 간 다툼은 교사나 어른들의 시야에선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에서 번지는 경우

가 많아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보단 눈높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제언했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고착을 통해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구희남 광주시교육청 장학사는 "해당 제도의 최종 목표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며 "학교폭력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하되 학교 자체 자생력을 강화하고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화기자

광주경찰 '또' 음주운전...올해 5번째

동부서 경감 앞차 들이받아 '들뚱'...공직기강 확립 기간 중 비위 '망신'

광주경찰이 '또' 음주비위를 저질렀다. 1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조사하고 있다. A 경감은 지난 12일 오후 8시20분께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차주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을 제외하면 큰 피해는 없었으나, 처리 과정에서 A 경감의 음주 사실이 들끓었다.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경찰은 A 경감이 낸 사고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동부경찰은 정계 수위 등을 논의 중이다. 광주지역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의 잇단 비위는 올해 들어 5번째다. 지난 3일 서부경찰서 소속 B 경감은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는데, A 경감처럼 처리과정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3·1절에는 서부경찰서 소속 C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단독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했다. 또다시 서부경찰서 소속 D 경위는 2월 2일 술을 마신 뒤 킥보드를 타고 가다 남

아저 음주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올해 첫 날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아 집에 가던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E 경위는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달미가 잡혔다. 직원들의 잇단 음주운전에 광주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음주운전 관련 공직기강 확립' 제1호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1일까지로 정한 '의무 위반 근절' 기간 동안 B 경감이 음주 비위를 저질렀던 것처럼 A 경감이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해 특별경보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인재영기자



의정 갈등 언제까지? 의과대학 중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로비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함께 마약' 내외국인 6명 검찰행 전남경찰, 유통책 등 수사 확대

전국을 돌며 마약을 투약한 내·외국인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씨 등 내·외국인 6명을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3명은 카자흐스탄 등 외국 국적의 여성들로 A씨가 필리핀에서 직접 국내로 밀반입 한 마약을 함께 투약했다.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한 전남경찰청은 A씨 등을 서울과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차례로 검거했으며 필로폰 15g, MDMA 6g, 약상대마 1개, 대마종자 78개, 투약기구 14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마약 유통에 관여한 총책, 아직 드러나지 않은 투약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 범죄를 포함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등 관련 범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영기자

'4년여 공전' 허재호 전 대주 회장 '탈세 재판' 출석할까

법원, 최근 8개월만 재개 또 불출석

탈세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8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4년여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이 '의혹 제기' 대부분 납부했다고 밝히며 향후 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재판을 8개월 만에 재개했다.

허씨는 지난 201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박씨 등 3명 명의로 보유한 주식매각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매당금의 종합소득세 6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기소 이전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던 허씨가 심장 질환,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4년여간 공전됐다. 그 사이 재판부는 허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했으나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허씨가 탈세

혐의를 받게 된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했다"며 "액수를 다 두고 있는 나머지 미납 세금도 납부할 예정이니 법원에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내려 납부할 세금이 특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 법무부에서 뉴질랜드 당국과 협의해 소환장 집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다시 재판을 진행하며 소환장 집행이나 허씨 출석을 기다릴 계획이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이 재판과 별도로 허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여여원을 빼내 담양 소재 골프장에 넘겼다는 횡령·배임 고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재영기자

성범죄 수배범 광양서 숨진 채 발견

검문을 피해 도망간 성범죄 수배범이 광양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

일 오전 11시18분께 광양시 한 야산에서 숨진 상태의 A(40대)씨를 발견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순천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자 순찰차를 들

이받고 도주했는데, 성범죄를 저질러 수배 중이었다. 먼저 발견한 A씨의 차량 인근에서 그를 찾은 경찰은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광양·양홍철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NEW 우라칸 SH-1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우라칸 SH-2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블리스 GOLD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15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스파이럴 숄저 특허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